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5월 7일 (제1200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항구여일(恒久如一)

권천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제가 총회장 목사님께 아부를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입니다.” 나는 권 목사님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그 분이 아흔이 넘은 연세에 나에게 아부를 떤 이유도 없지만, 그분의 말씀에서 ‘역시 세월 만큼 큰 스승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작심삼일(作心三日)도 계속하면 위대한 결단이 된다. 삼일이 계속 이어지면 평생이 되니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분들, 열심히는 하는데 꾸준히 안 해서다.

초지일관(初志一貫), 항구여일(恒久如一). 내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다. 이것이 영·혼·육의 성공비결이기 때문이다. 내 차를 운전해주는 김충직 장로의 딸이 좀 통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날씬해지고 예뻐져서 못 알아볼 정도였다. 그 딸은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관리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그 정신이면 너는 뭐든 해낼 거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그렇다. 꾸준히 책을 읽으면 다방면에 유식해지고, 꾸준히 피아노를 치면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고, 꾸준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꾸준히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왜 답을 알면서도 해내지 못할까? 처음 마음이 식어서이고, 처음 마음이 변해서이다. 계속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국회의원 되었을 때 첫 마음을 지속하면 된다. 계속 부부 사이가 좋은 길도 결혼 초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된다. 계속 승진하고 싶으면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도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이 말씀은 신앙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경고의 말씀이다. 목적을 향해 꾸준히 가보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3:14).

두려움은 아는 것이 없을 때 오는 병이다

필리핀 세부집회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연이어 진행되는 집회로 목사님으로서 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은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손주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냐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손주들에게 저 주는 거죠. 그럼 녀석들이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는데, 그걸 보는 게 큰 기쁨 아니겠어요.’라고 합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탄천휴게소에 잠시 들렀는데, 그곳에 먼저 있던 성도들이 나를 발견하고 달려와 열싸안 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

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지식, 이것을 알아야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역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70여 개국을 복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던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나처럼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이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

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패들 앞에서, 집회장에 최루탄을 던지는 무리 앞에서, KGB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종교재판을 받는 등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지만 머릿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 역시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에 희열에 찬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2023 춘계산상집회(5월 1일~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에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더군요. 목회하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했습니다.” 목사님은 첫날 집회를 통해 ‘아는 것이 없으면 두려움,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진 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두려운지 압니까?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4:6). 지식이란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

신을 쫓아내며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마귀는 죽인다고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는 죽음 없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지식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승리한 것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담대히 왕 앞에 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진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담대한 것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

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끝으로 목사님은 ‘빛이 없어도’ 찬양과 함께 회중 속으로 들어가 일일이 성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셨는데, 정신병 아들을 둔 어미에게서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장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7~8)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신다

마가복음 2장에는 증풍 앓는 친구를 고치려고 네 명의 친구가 남의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증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막2:5).

마태복음 9장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도 볼까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9:22).

마가복음 10장에는 날 때부터 거지요, 소경인 바디매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에 오매불망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10:52).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가 되지 말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경이나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만 보셨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돈만 보고 물건을 팔 듯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로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막9:22)라며 간절히 아들의 병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결핍되어있는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이에 주님은 뭐라도 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아들의 치료가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빌4:13).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막9:24).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계 안에서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3~1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한 매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것 이 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약속, 또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의 뜻이 뭘니까?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가 아니라 뭐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눅18:27).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무엇이든지’ 이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1:6~7).

여기에 나오는 ‘무엇이든지’는 ‘어떤 것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것도 얻을 생각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업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당도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든 무덤의 돌을 옮기라 하시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11:39)라고 답합니다. “주님,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는 상황이 나 환경, 문제의 대소(大小)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건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눅17:6)고 하셨습니다. ‘무한대(∞)×0=0’이지만, ‘무한대(∞)×1=무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우리 믿음이 곱해질 때 무한히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를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려면 전적으로 믿어야죠. 맡기시려면 전적으로 맡겨야죠. 저도 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100% 맡기지 않으면 절대 그 일에 관여를 안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인물 앞에는 다

‘믿음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중 가장 길게 언급된 아브라함을 살펴 볼까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무자(無子)한 자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된 기적이 믿음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게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롬4:18~22).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선 모세의 심정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분이기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롬4:1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예비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100%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은 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얽힌 문제들은 풀리고, 엄동설한 같았던 삶에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능히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니 바로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지고 말았음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막9:19).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7~8).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세부를 예수중심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세부예수중심교회는 두 성전과 300명 성도로 성장하였다



2023 필리핀 세부집회 광경(세부 스포츠센터)

인구 300만의 도시 세부(Cebu)에 새로 건설된 막탄(Mactan) 제3 대교는 현수교 주탑이 십자가 형상으로 세워져 있다. 목사님은 집회장을 오가며 야경에 선명히 빛나는 십자가를 보시며 인상이 깊으셨나 보다. 그리고 이번 세부 집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볼 때 분명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리란 예감이다. 집회 이튿날은 첫날과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집회 시작 전에 이미 집회장인 스포츠센터는 인파로 가득하여 다 입장조차 불가능했다. 음향조정도 잘 이루어져 메시지 전달도 한층 좋아졌다.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소란과 부채질은 찜통더위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였지만, 메시지 전달이 원활해지자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회중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목사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주제로 이를 연속 외치고 또 외치셨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고착된 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함께 외쳤다. 첫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은 목사님의 선창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외치며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였다. 성황리에 집회를 마치고 귀국에 앞서 목사님은 교회 일꾼들을 중식당으로 초치하여 대접하고, 식사 후 바로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셨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었다. 이번 집회에 발로 뛰며 전도한 성과로 체육관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결과를 스스로 목도

했기에 성도들 모두 매우 고무된 표정이였다. 목사님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느라 유상진 목사님과 사모, 그리고 모든 성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보람 있었습니까? 이 이틀간의 집회만 가지고 주 앞에 서도 엄청난 상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부 도성을 예수중심 도시로 만들어봅시다.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야외장소를 잡아서 10만 명 대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가졌기에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 오늘날 두 성전과 300명의 성도로 성장한 세부예수중심교회를 위해 20년 가까이 눈물로 씨를 뿌려온 유상진 목사 또한 매우 고무되어있었다. 유 목사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처음 인천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간증했다. “꿈에 불덩이가 내게 임하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

다.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 다. 오늘까지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 사람의 외모나 지위, 학력, 그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세부예수중심교회, 오늘의 세부집회의 결과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비록 운물을 바짝 말라 괴골이 상접한 지경이었으나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동행한 조의수 장로, 강요셉 장로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4년 만에 다시 열린 세계 선교의 문, 그 첫 집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슴 설레는 역사로 인도해주셨다. 목사님 말씀처럼, 4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 남미처럼 가톨릭 신앙이 기반이 되어있는 나라, 그야말로 복음의 황금어장이 아닐 수 없다. 오는 12월, 대형 야외집회를 통해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가든지, 보내든지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세부의 복음화를 위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두 개의 십자가가 새겨진 세부시 막탄 제3대교

:: 낮은 울타리 ::

작은 구멍

몇 달 전 이불에 생긴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자다가 머리핀에 찢긴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걸려 찢어진 것인지 알 순 없었지만 아주 작은 구멍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고 침대를 정리하다가 작았던 구멍이 조금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때 이불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니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구멍이 제가 한눈에 확 보일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커진 구멍이 이제는 조금만 건드려도 더 쉽게 찢어지는 상

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밤이 늦었으니 다음날 껌매기로 하고 그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자다가 그 구멍에 발이 들어갔고, 그 발을 뒤척이며 빼내려다가 이불이 찢어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확인해보니 아래위로 이불커버가 크게 찢겨 있었습니다. 바느질로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다 찢긴 커버를 벗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며 ‘어쩌면 우리 마음이나 생각도 이 이불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

다. 은혜가 넘치던 마음에 아주 작은 부정이나 원망의 구멍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벌어진 구멍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군대장으로 임명할 만큼 다윗을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더라”(삼상18:7)는 말을 듣고 다윗을 향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은 견줄 수 없이 커져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

려고까지 합니다. 이렇듯 봉합하지 않으면 작은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까지도 그 크기를 키워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방치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마음들은 커져서 나중에는 나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고 맙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봉합해 절대 다시는 그 생각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십시오.

장수정

겸손한 기도 vs 교만한 기도

바다에 폭풍이 일어 배 한 척이 난파됐는데 배에 타고 있던 남자 둘만이 살아서 작은 무인도까지 어렵사리 헤엄쳐 갔습니다. 두 남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찢절매다가 이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자A는 평신도였고, 남자B는 목회자 신분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작은 섬을 둘로 갈라 평신도인 남자A는 이쪽 끝에, 목회자인 남자B는 다른 한쪽에 자리 잡고 구조될 때까지 각자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먹을 것을 청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남자A는 이튿날 자기 구역에서 열매 맺은 나무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반면 반대편 목회자 남자B의 구역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러도 구조 소식은 감감하고 요원해졌습니다. 평신도 남자A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다른 배 한 척이 난파되었고, 유일한 생존자인 여인 하나가 그의 구역으로 헤엄쳐왔습니다. 두 달이 지나 그 여인은 평신도 남자A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쪽 목회자 남자B에게는 여전히 생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신도 남자A는 곧이어 자식과 집과 의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도했던 것을 기적과 같이 하나하나 모두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섬 저쪽의 목회자 남자B는 여전히 빈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난 후, 평신도 남자A는 자신과 가족이 섬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배 한 척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달 후 아침에 보니 배 한 척이 가까운 해변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너무 기뻐했지만 평신도 남자A는 교만한해진 나머지 저쪽의 목회자 남자B를 그대로 섬에 남겨두고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평신도 남자A가 보기에 섬의 반대편 목회자 남자B의 기도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목사라고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고 결코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했

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남자A가 배에 올라 섬 저쪽의 목회자 남자B를 뒤로하고 떠나려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같이 난파당하고 고생한 네 동료를 남겨두고 떠나려 하느냐?” 평신도 남자A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들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니 저 혼자 누려야 할 몫입니다. 저 목회자 남자B는 목사이면서도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루어 판단하자면 하나님께 중한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축복도 누릴 자격이 없는 버려진 남자 아닐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평신도 남자A를 엄하고 중하게 책망하며 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헛소리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 기도는 바로 저 사람의 기도니라. 그의 기도가 없었던들 너는 아무런 것도 얻어 누리지 못했을 것이니라.” 평신도 남자A는 지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저쪽의 남자B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이 그의 덕이란 말입니까? 부디 말씀하여 주시지요.” 하늘에서 다시 안타까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은 너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느니라.” 평신도 남자A의 모습에서 우리의 자화상이 보이시는지요? 우리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셀 수 없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 뒤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성령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습니까? 남보다 믿음이 월등하고 누구보다 많은 헌금과 봉사를 드렸습니까? 늘 주일성수와 예배에 충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나를 위해 합심 기도와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절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번아웃의 자리, 기도 한 구절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였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의 원천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의인의 간구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기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기에 의인의 간구로서 역사하는 힘이 많아졌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셨기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는 내 믿음에 의한 주술행위가 아니며 내 선행의 대가로 오는 거래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5:5).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같이 기도했던 주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나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중심교단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가 모두 열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텐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안주를 도전으로

최근 뉴욕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누구는 부럽다고도 하는데, 사실 나는 해외 출장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이슈가 된 아시아인 혐오 범죄와 생전 처음 가보는 장소, 처음 접하는 사람,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키지 않는다는 내색을 회사에 조금씩 했다. 그러던 와중 주일예배 때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설교를 들었다. 주도적, 자발적, 기여하고, 오래 참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자가 하버드 대학 인재상이라는 것과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어떻게 ‘Management’를 할 수 있겠냐는 말씀, 삽질을 하더라도 저수지를 파는 자세가 성공으로 이끈다는 말씀은 모두 내게 안주를 추구하지 말고,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오래전 어느 분이 내게 했었던 말도 다시 떠올랐다. 하나님이 보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하나님, 저는 깔끔하게 케이크만 썰게요.’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아내도 마음 편히 잘 다녀오라며 내게 힘을 주었다. 이에 결심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던 모든 이유와 생각들을 접어두고, 출장을 가서 여러 유익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모든 이유들은 그저 나의 안주를 위한 핑계였고, 염려들은 또 다른 이유를 찾는 것이었고, 두려움은 그저 허상이었다는 것을. 안주를 도전으로 전환하니 새로운 경험들로 머릿속이 환기되었고,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라는 용기도 다시금 생겨났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수14:11).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두려움이란
아는 것이 없을 때 오는 병이다
배우고 익히면 자신감이 잉태된다
-봉우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Good News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2배나 되는 강력한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발전한 문명도 재해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도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태를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과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하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들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눅 21:10~11)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현상과 징조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 생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세의 어떠한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화평 목사